

碩 士 學 位 論 文

고등학교에서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방안 연구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 語 教 育 專 攻

高 枝 希

2005年 8月

고등학교에서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방안 연구

指導教授 金 鍾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高 枝 希

高枝希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國文 抄錄>

고등학교에서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방안 연구

高 枝 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최근 영어교육의 흐름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통합적인 영어교육의 강조 등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이라는 대전제 아래 입시위주의 수업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읽기 지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 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읽기 지도를 통해 말하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신장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EFL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를 포함한 문자 언어 지도방법 및 자료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지도를 통하여 읽기에서 말하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유도하였고, 결국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말하기 기능에 가까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읽기 기능 연습 단계에서는 읽기 지문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기를 실시하되, 의미단위에 중점을 두어서 발음, 강약을 조절하며 읽기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연습방법을 통하여 읽기 지문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와 구문을 익히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기능을 유도하였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또한 직독직해의 방법을 통해서 읽기를 통한 말하기 연습을 시킴으로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발화의 과정, 문장 구성의 과정을 터득하게 되고 실제 말하기의 기초연습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의 자연스런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상황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배운 구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는 토론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읽기 위주의 수업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총체적인 언어학습의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살펴볼 때, 언어의 4가지 기능들을 각각 따로 분리시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은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표현되고 이해되는 총체적인 특성을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지도방안의 한 일례로서 읽기 지도를 통해 말하기 기능의 신장을 발전시킴으로서 각 영역의 자연스러운 통합은 물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이 연구가 이론에 그치는 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교육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변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 차

I. 서 론	1
II.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신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읽기 지도의 방법	6
2. 말하기 지도의 방법	13
3.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지도 방법	19
4.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읽기와 말하기 성취기준	26
III.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지도의 방법과 실제	
1. 연구의 계획 및 실행	29
2. 지도의 실제	31
가. 능동적 읽기의 성취기준	31
나. 단원 분석	32
다.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수업 모형	34
라.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지도 단계	36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듣기 기능 변화	46
2. 말하기 기능 변화	49
3. 정의적 영역 변화	52
V. 결론	54
참고문헌	56
Abstract	5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므로 도구와 수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의적 성장과 발달과정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 학습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기능을 이해기능(listening, reading)과 표현기능(speaking, writing)으로 양분하여 통합적으로 교수하도록 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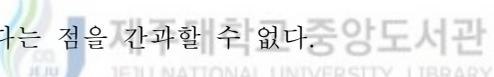
이것은 영어교육이 교과 내용의 지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 속에 가치 지향적인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종전과는 달리 영어교과 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전 분야에 걸쳐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가령 과거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교육이 아닌, 영어 그 자체의 학문적 이해와 시험통과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졸업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어 성취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 기능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거나 학습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편의상 가장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언어의 4기능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기능이 향상은 다른 기능으로 전이된다. 이 네 가지 기능을 고르게 신장시키기 위해 과제중심 또는 활동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1)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외국어(영어)」, 서울 : 교육부, pp. 10~13.

추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은 달라진다. 사실,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이라는 대전제 아래 빠듯한 수업일정을 매 시간마다 소화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초·중학교 영어수업처럼 활동 중심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대부분은 읽기 자료에 근거한 내용해석과 분석, 독해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는 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기술된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영어교육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은 그 자체가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언어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읽기가 중심이 되는 현 고등학교 영어교육 상황 속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 지도를 통해 말하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일련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방법을 모색해 보려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살펴볼 때, 언어의 4가지 기능들을 각각 따로 분리시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은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표현되고 이해되는 총체적인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7차 교육과정 중 외국어교과에서도 언어기능의 통합적 신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고등학교 언어 학습자들에게 읽기 지도를 하면서 말하기 기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신장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가설

과거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문법교육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음성언어교육에 소홀했고 읽기의 경우 문법적 분석을 통한 해석능력을 기르는 데 급급해왔기 때문에 직독직해력이 부족하여 외국의 정보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 말하기 경우에도 문장 단위의 글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은 길렀으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 즉,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읽기지도를 통한 말하기 기능향상이라는 통합적 활동을 적용해 수업한 실험집단과, 현 영어교육 읽기지도 과정에서 교과서에 따라 해석 및 문법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 및 읽기 속도의 향상 면에서 얼마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독해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전반적인 듣기 능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독해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말하기 능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독해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정의적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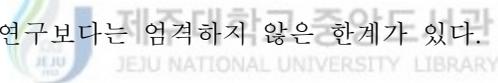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첫째, 연구의 대상이 본 연구자가 재직했던 제주도 서귀포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역적 상황이나 교육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실험 처치 기간은 총 20주(주 2회, 총 40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험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장기간의 언어 능력 변화 및 정의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듣기, 읽기, 말하기, 정의적 영역의 평가도구는 연구자가 학습내용에 따라 교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험연구이므로 변인처리와 결과해석에서 실험연구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이란 흔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언어 행위를 가리킨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이해와 표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이해와 표현, 지시와 부탁, 권유, 정보 교환 및 의견 교환, 문제 해결과 상상적, 창조적 활동을 위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특히 읽기를 통해서 얻어진 언어상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하기 및 듣기 활동에 중점을 두는 기능으로 본다.

나. 통합 언어기능 중심의 읽기 지도

통합 언어기능이란 언어의 네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어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세 기능의 향상을 촉진시켜, 한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읽기 지도를 통해 다른 세 가지 기능 즉 듣기와 말하기 및 쓰기 기능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통합언어 기능 중심의 읽기 지도란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하는 활동 중심의 지도를 나타낸다.

다. 능동적 읽기 활동

읽기 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읽기가 가만히 앉아 텍스트를 해석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 과정(active process)이라는 것은 Adrian Doff(1988)에 의해 지적된 바를 근거로²⁾, 본 연구에서 도입하는 능동적 읽기(active reading) 활동이라 함은 읽기를 단순히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수동적인 읽기 활동이 아니라, 직독직해를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해석은 물론, 그 읽기 자료 속에 들어있는 구문과 어휘들의 발음 및 억양에 유의하여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읽기 자료를 말하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장으로 재구성하되, 확산적 발문을 통해서 이미 익힌 문형 틀을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말하기 기능을 통합한 읽기 활동을 의미한다.

2) D. Adrian(1988), *Teaching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7.

Ⅱ.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신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보다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우리문화를 소개하고, 외국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장에서는 이 논문의 이론적 토대로서 영어의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기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인 읽기 지도와 말하기 지도의 방법 등을 고찰한 후,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지도의 필요성과 교수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1. 읽기 지도의 방법

가. 읽기의 정의

최근들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인해 말하기·듣기 능력의 신장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읽기, 쓰기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Carrell(1988)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EFL 상황에서는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라고 한다.³⁾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인지주의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의 영향으로 교사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

3) P. L. Carrell(1988),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

에 맞추어 읽기지도에 대한 방향도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읽기는 단순한 사실만을 이해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텍스트 내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사고과정으로 정의된다.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견해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주장과 심리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학습초기 단계의 읽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 언어학자들은 문자의 해독 단계를 이미 거쳐서 상당한 읽기 능력을 가진 학습자의 의미파악을 위한 읽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적 측면에서 읽기를 설명한 Stauffer(1976)는 읽기란 인쇄된 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며 인쇄된 단어를 음성화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호나 철자, 부호 등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해석하고 인쇄된 단어를 통해 작자의 사상과 표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았다.⁴⁾

즉,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자체가 구조의 연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읽기의 경우에도 문맥적 의미를 배제하여 텍스트에 나열된 단어를 알고 그것을 엮어 문장의 단위로 연결시키는 문맥적인 흐름의 파악 없이도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심리 언어학자들은 읽기는 단순히 언어의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독자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 가령 Vygotsky(1965)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Goodman(1986)은 읽기를 ‘심리언어학적인 추측게임(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으로 정의하였고, 표집(sampling), 예측(predicting), 점검(testing), 예측한 내용의 확인(confirm) 또는 수정(revising)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독자가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

4) M. Stauffer(1976), *Teaching Reading as a Thinking Process*, New York : Harper & Row, pp. 10~15.

다.5)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읽기는 독자와 저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고 많은 부분이 독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언어학자들은 읽기를 독자의 선행적 지식과 선행적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읽기 과정은 독자가 이미 갖고 있는 선행적 지식과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에 대한 위 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읽기란 독자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교재의 문자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사고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연관시켜 이해해 가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읽기 과정 모형



앞서 지적했듯이, 읽기란 그저 글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언어적, 인지적 과정을 요구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활동이다. 즉,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 학습자의 선행지식 및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동기, 흥미, 태도, 욕구, 불안 등)이 복합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읽기 과정의 모델로 나왔던 글의 언어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상향적 과정 모델과 독자의 선행지식 구조와 예측가능, 추론능력 등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하향적 과정 모델 중 어느 한 읽기 모델만으로는 읽기 과정을 포괄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요인들이 의미 구성을 위해서 각기 기여하도록 상향적 과정과 하향적 과정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기는 상호적 처리 과정모델이 보다 균형 잡힌 모델이

5) K.S. Goodman(1967),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Journal of the Reading Specialist* 6(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5-138.

될 수 있다.

읽기에 관한 모형은 크게 상향식(bottom-up)모형, 하향식(top-down)모형, 상호작용(interactive)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상향식 모형은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여 독해과정을 단어와 같은 언어의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단위인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의 단위에서 의미를 해독(decoding)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 읽기는 수동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하향식 모형에서는 학습자의 선행지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읽기는 독자의 인지과정이 개입된 활동으로 보아 단순히 교재에서 주어진 내용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저자의 의도 및 주제 파악, 내용 추측 등 거시적인 개념을 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시각적 정보와 선행적 지식인 비 시각적 정보가 상호작용한다. 특히 독자의 배경지식 또는 선행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간단히 종합하면, 읽기 과정은 텍스트의 단어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예측(prediction) 및 추측(guessing)의 과정이 중심이 되어 의미를 파악하는 하향식 모형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 읽기 지도 단계

Dubin과 Bycina(1991)는 읽기 지도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목표와 그에 따른 유익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⁶⁾

읽기 지도의 단계는 크게 읽기 선행 활동(pre-reading), 읽기 본 활동(while-reading) 및 읽기 후행 활동(post-reading)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읽기 지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선행활동의 단

6) F. Dubin & D. Bycina(1991), *Academic Reading & the ESL/EFL Teacher*. In M. Celce-Muric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MA : Heinle & Heinle Publishers. pp. 22-125.

게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형지식을 활성화시키며, 학습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언어적 준비를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

1) 읽기 선행 활동

읽기 전 활동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 시키고, 글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언어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글을 읽고 싶다는 의욕을 갖게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⁷⁾

첫째, 교재에 나온 그림과 지도, 도표 등을 보고 생각하는(look and think) 활동을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재를 읽기 전에 그림과 기타 자료를 보고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생각하는 활동이다.

둘째, 교재에 나온 그림, 지도, 도표 등을 보고 말하는(look and talk) 활동을 한다. 교재에 나온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추측한 바를 발표하거나 토의하게 하는 활동이다.

셋째, 녹음이나 비디오를 통하여 상황을 보여주면서 발음을 들려주고 생각하게 하는(listen and think) 활동을 한다.지

넷째, 교재의 제목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말한 단어들을 칠판에 써 놓고 단어들이 개념과 주제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영어의 단어와 구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교재의 내용 전부나 또는 일부를 먼저 대충 훑어 읽도록 하는 활동(previewing)을 할 수 있다. 이는 내용 중에서 주요한 단어를 식별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연상하고 추측하게 하는 활동과,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바르게 추측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배두분(1997), 「영어교육학」, 서울 : 한신문화사, pp. 10~20.

2) 읽기 본 활동

영어의 읽기 중 활동은 교재의 구성, 내용, 학습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교재나 글의 구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읽기 중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첫째,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활동을 한다. 질문은 문자로 표현된 글의 의미와 세부 내용에 대한 것,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에 관한 것, 관련된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둘째, 교재에 나온 글을 읽어 가면서 진술, 지시, 질문 등의 활동을 한다. 이는 중요한 정보찾기, 글과 문단의 구성, 논리적 흐름과 순서, 인과 관계 등에 관한 것들을 알아내는 데 필요하므로 흐름도를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읽기 중 활동이 끝나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과제 수행이 성공했는지 어떤지 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나중에 주어지면 관련주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 피드백은 짝이나 그룹 활동으로 행해지며 이것이 읽기 후 활동으로 이어진다.

다) 읽기 후행 활동

읽기 후 활동은 학생들이 교재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내용 중심의 복습을 하는 활동이다. 복습을 하는 경우에 문법, 어휘, 담화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역할극을 시킬 수 있고, 낱말 단위에서 문자와 음성의 관계, 대문자와 소문자의 쓰임, 구두점의 쓰임, 낱말의 어형변화, 단수와 복수 관계, 복합어에 대한 이해정도를 점검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림이나 사물을 이용하여 대응되는 낱말, 구, 문장을 찾게 하는 놀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실에서의 읽기지도는 가만히 앉아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읽기지도를 해야한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를 위해서 읽기 전과 읽기 중, 그리고 읽기 후 활동을 각 단계별로 적절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라) 읽기 교재

가장 일반적인 읽기 교재의 형태는 본문을 주고 그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형식이 없다. 대개 문장 단위의 분석, 해석이거나 본문 뒤에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따르게 되는 형태인데 실제로 읽기 자료를 주고 이해도를 지도하기보다는 결과를 알아보는데 그치고 있다. 이보다는 읽기 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해서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중심의 읽기, 학습자들이 혼자 힘으로 주어진 글에 접근해서 내용을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가 바람직하다.

결과중심 교재에서는 대개 학습자들에게 본문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그러나 과정 중심교재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 문제나 질문이 먼저 제시된 후 본문이 나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읽기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같은 글이 여러 번 제시되기도 한다.

2. 말하기 지도의 방법

가. 말하기의 특성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말을 한다.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며 때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하기는 음성언어 자체의 구조적인 성질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말은 여러 가지 발음들을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강세, 리듬, 억양을 첨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개별적인 발음은 앞뒤의 환경과 강세, 리듬, 억양의 영향을 받아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등 변형을 하게 된다.

말하기의 특성으로 먼저 ‘음성언어의 선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음성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의 특성인 ‘발화음성의 즉시 소멸성’은 바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발화 순간에 그 말한 내용이 사라짐을 나타낸다. 그리고 한번 잘못 발화한 말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언어와는 달리 그 음성을 되풀이하여 들을 수 없으므로 순간적이고 일회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청자와 화자의 직접 대면성’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⁸⁾

나. 말하기 지도 단계

먼저 Rivers & Temperley(1978)는 말하기 배우는 단계를 1)지식습득의 단계,

8) 김진우(1999), “고등학교 영어 소리내어 읽기 활동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7 에서 재인용.

2)가상 의사소통의 단계, 3)실제 대화의 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9)

물론 이 단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초보자도 실제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세 단계 중 지식습득 단계에서 쓰이는 말하기 활동은 실제 말하는 활동보다는 문법적 학습을 위한 괄호 채우기나 통사적 형태 변화를 익히는 등의 지식 습득이 많다. 가상 의사소통 단계는 지식 습득 단계와 실제 대화의 중간단계로서, 실제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말하기 활동 유형은 4 내지 5 줄 정도 길이의 문장을 암기하여 보고하거나, 대화의 중간에 공백을 두고 알맞은 문장을 넣는 등의 활동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목표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배우게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Rivers & Temperley(1978)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 말하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말하기 지도 할 때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⁰⁾ 첫째, 문법 학습을 위한 구두연습 단계(oral practice for the learning of grammar), 둘째, 구조화된 상호작용(structured interaction), 셋째, 자동적인 상호작용(autonomous interaction)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단계는 먼저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두로 연습을 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 구두연습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반복과 제시훈련, 대치훈련, 회화, 문장변형, 질문과 대답훈련 및 번역 연습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법 학습을 위한 구두 연습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구조화 된 상호작용(structured interaction)이 다음 단계로서 필요하다. 이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도록 동기를 자극하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의도한 의사표현을 전달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9) W. Rivers & O. Temperley(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A : UCLA Press, pp. 10~50.

10) *Ibid.* pp. 10~50.

이것이 자율적인 상호대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 중간단계이며, 유사의사소통 (pseudo-communication)을 위한 단계이다. 이는 학생들의 의사교환이 학생들의 마음과 정서로부터 자율적으로 솟아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전달내용이 학습상황에 의해 조작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자동적인 상호작용 단계는 실제 상황과 다름이 없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언어소통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표현들을 통해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의사소통의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다. 말하기 기능 신장 방법

말하기는 표현 기능으로 이해기능을 전제로 하는 복잡한 활동이다. 소리의 발생에서부터 의사소통 전략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Brown(1994)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16가지 하위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¹¹⁾

- (1) 서로 다른 길이의 소리를 발성하기
- (2) 음성 단위를 인지하고 발음하기
- (3)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는 형태로 발음하기
- (4) 단어와 어구의 약화된 형태로 발음하기
- (5) 적절한 양의 단어를 사용하기
- (6) 적절한 속도로 말하기
- (7) 발음중에 휴지, 간투사(fillers), 수정 등의 전략사용
- (8) 문법 체계와 규칙 활용하기
- (9) 자연스런 의미 단위 만들기

11) H. D. Brown(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rentice Hall Regents : Englewood Cliffs, New Tersey, pp. 257-258.

- (10) 하나의 의미를 여러 가지 다른 문법 형태로 만들기
- (11) 담화상의 원칙에 맞게 말하기
- (12) 의사소통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 (13) 직접 대화에서 사회 언어학적 요소 사용하기
- (14) 주요소, 보조요소, 신·구정보 등의 관계 나타내기
- (15) 표정 및 제스처 등 신체 언어 사용하기
- (16) 의사소통전략 사용하기

이러한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기계적 연습, 유의적인 연습, 의사소통적인 연습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계적 유의적 훈련이 어떻게 의사전달 활동으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의사전달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보면,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연습을 구상할 때 학습자와 교사, 혹은 학습자간에 의사 교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황(situation)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하는 연습을 시킬 때 긍정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어를 바꾸어 실제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답을 하게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A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B와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다.

ex) A: We are sitting in the hall. Are we sitting in the hall?

B: I've been waiting a quarter of an hour. Have you been waiting long?

둘째, 교사와 학생사이의 연습을 한 다음에는 학생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킨다. 이 연습이 학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교사가 제시한 언어표현과 유사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학습초기에서 이런 활동을 시키면 점차 의사교환활동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셋째, 간단한 구조라도 상상력을 작동시켜 자발적인 표현을 하게 한다. 물론 상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흥미를 붙여넣어 주는 유효한 학습이 될 수 있다.

ex) A: Where were you last night?

B: Last night I flew to the heaven and enjoyed there.

넷째, 한 구조를 배울 때 두 유형의 연습을 시킨다. 예를 들어 'He goes to the stadium' 의 구조를 연습시킬 때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연습을 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유형에서는 기계적인 연습을 시키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에 따라 문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기본문 : He goes to the stadium.



Type A

T: often

S: He often goes to the stadium.

T: On Saturdays

S: He often goes to the stadium on Saturdays.

Type B

S1: He goes to the stadium.

S2: He often goes to the stadium.

S3: He often goes to the stadium on Saturdays.

S4: He often goes to the stadium by bus on Saturdays.

이 밖에 말하기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비교, 게임, 표채우

기, 토론, 연속설명, 설명 듣고 행동하기, 역할극 등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활동을 시킬 수 있다.

말하기 지도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발화시 의사소통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 실수는 즉각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고나대하게 지나도록 한다.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표현 할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틀린 표현이더라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격려하고 감싸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3.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지도 방법

가. 통합영어교육의 의미

최근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이란 한 과목의 내용을 가르칠 때 다른 과목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이라 함은 이 같은 개념 외에도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언어의 4가지 기능들을 분리시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언어교육의 최종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이 확실히 인식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합적인 언어기능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언어 기능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 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와 전화통화나 대화를 하다가 대화내용을 받아 적을 경우, 말하기와 듣기, 쓰기의 기능이 필요하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할 경우,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

둘째, 적절하고도 풍부한 언어 환경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언어기능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란 자연스런 상황 맥락 속에서 광범위한 입력이 주어지고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습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제외하면 영어의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극히 적고 영어사용의 동기유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Brown(2001)도 통합적인 언어기능(integrated language skills)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언어 기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며, 교사로 하여금 흥미롭고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수업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한 가지 기능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특정 기능이 다른 기능과 서로 관련이 되도록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어 언어기능의 통합을 주장한다.¹²⁾

- ①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다.
- ②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 ③ 구두언어와 문자언어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언어의 풍요로움을 무시하는 것이다.
- ④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학습자에게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상호 유대관계는 언어와 문화, 사회의 반영을 동기유발 시킨다.
- ⑤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이차적으로 언어의 형식을 다룰 때, 교실수업에 적절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다룰 수 있다.
- ⑥ 하나의 기능은 다른 기능을 강화시킨다.
- ⑦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통합기능교육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언어사용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며 언어교육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12) H. D. Brown(2001), *Teaching by Principles*, New York :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p. 68.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개발하기 위해 영어의 문법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 범주를 기본 단위로 하여 영어를 학습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진 교수법이다.

또한 의사소통 활동은 교사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이 나타내는 활동이다. 교실에서 상황은 언제나 인위적일 수 밖에 없지만 교실 밖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은 보다 실제적인 언어 상황에 근접해 있다고 하겠다. 의사소통활동에서는 언어의 형태보다는 전달되는 내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활동 중에 문제 삼지 않는다. 교사의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과제는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말을 한다.

먼저 Hymes(1972)의 주장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첫째, 문법성(grammaticality), 즉 말이 언어 형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¹³⁾

둘째, 실행가능성(feasibility), 즉 그 언어가 실행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적합성(appropriateness), 즉 사용하는 그 언어가 상황에 적합하게 성공적으로 문맥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실용성(practicability), 즉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사용되어지는 말인지를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내포된 개념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서는 영어의 구조와 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강조한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교사는 협동학습 및 소집단 학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학생들의 수

13) D. Hymes(1972) "Toward Ethnographies of Communication: the analysis of communicative events". In Pier Paulo Giglioli (ed.) *Language and Social Context*. Harmondsworth : Penguin, pp. 20 ~30

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되 구문의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에 역점을 두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기능의 향상이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언어교육의 방법 면에 있어서 바로 언어의 4가지 기능의 통합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사소통은 언어의 특정한 기능만을 강조할 때에는 결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만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적 영어교육을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과 통합기능교육

사회 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행위를 사회적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Goodman(1986)의 총체적 언어이론은 외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의 편성 및 교수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언어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의 필요나 목적이며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상황에서 목적 있는 활동을 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전통적인 외국어교수법은 대개 상황식으로 어휘나 문법을 배운 다음에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 이론에서는 하향식으로 언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익히는 데만 전념하기 보다는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문자의 해독(decoding)에 초점을 두어 문법, 어휘, 낱말인식, 음철법(phonics)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언어를 총체적,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서도 강조가 된다. 이는 언어 기능

14) K. S. Goodman(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 Heinemann. pp. 20~30.

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내용의 통합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언어기능의 통합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은 언어를 지도할 때 각각의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서 실제 사용을 통해 언어를 익히게 하려는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언어를 전체적 의미를 다루는 덩어리로 봄으로써 학습 주제에 따라 총괄적이며, 통합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Goodman(1986)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 교수법은 총체적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언어 자체를 위한 교수법이 아니라 실제적 언어 상황에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학습자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구어와 문어의 모든 다양한 기능들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¹⁵⁾

특히, Freeman & Freeman(1988)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 교수법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진전이 되며,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실제 언어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EFL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영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이 비록 특정 언어기능을 강조한 수업시간일지라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통합기능 방법을 개발하여 통합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¹⁶⁾

우리가 총체적 언어교수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억지로 또는 부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외우게 하는 식의 외국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게 하는 수업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데에 찾아야 할 것이다. 언어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대강을 추측하고 이해하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능력이 세부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15) *Ibid.* pp. 35~40.

16) D. Freeman & Y. Freeman(1988), *Whole Language Content Lessons for ESL Students*, Portsmouth, NH : Heinmann Educational Books, pp.15~25.

4) 읽기와 말하기 통합지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만큼 영어공부에 열심인 나라도 드물다. 나라 전체가 영어공부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그토록 열심히 한다는 영어 공부결과는 어떠한가? 대체로 부정적인 대답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영어를 듣기 따로, 말하기 따로, 단어 따로, 읽기 따로, 글쓰기 따로 학습하는 현상 때문이다.

언어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표현양식만 다를 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기능이 서로 맞물려서 도울 적에 언어학습에 놀라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독서와 언어 능력 향상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 결과에서 책을 읽는 것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고,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ESL 학습자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할 단계가 되기 전에 읽기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EFL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를 포함한 문자언어 자료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 자료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교육의 궁극적이며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언어 위주의 교육 속에서 음성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하기 기능도 동시에 신장시키는 통합적 교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입시교육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읽기 중심의 편중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그나마 듣기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듣기능력의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읽기와 듣기기능의 강조만으로는 총체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라는 궁극적인 언어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읽기중심의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말하기 기능도 함

게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총체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읽기자료(reading text)에 관해 제목이 무엇인지 추측하도록 하는 읽기 전 활동에서나, 읽기 자료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읽기 중 활동에서는 물론 읽기 후 활동으로 제안할 수 있는 토론과 같은 활동에서도 모두 말하기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읽기 지도와 말하기 지도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라는 커다란 차이점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이 마치 서로 다른 기능인 것처럼 별개의 분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읽기 지도를 통해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읽기와 말하기 성취기준

1997년에 개정된 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우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의 신장과 정의적 영역에서 문화간 이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표 외에는 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성격을 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중등학교 영어는 학생들이 현대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국제 사회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중등학교 영어 교육 방법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르도록 학습 경험과 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 습득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이 되도록 한다.¹⁷⁾

이렇게 볼 때 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영어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통합적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언어의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와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된 성취기준(learning standards)을 제시하였는

17)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외국어(영어)」, 서울 : 교육부, pp.60~63.

데, 본 논문이 관심을 두는 고등학교 영어 과목에 관한 읽기와 말하기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읽기와 말하기 성취기준 >

		읽기	말하기
10-a 단계	기본 과정	(1) 문맥에 비추어 의미를 예측하고, 그 단서를 찾는다. (2)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읽고,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통합한다.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글을 대강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글을 훑어 읽는다.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비교적 막힘 없이 대화한다.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3) 친숙한 주제에 관해 준비하여 발표를 한다. (4) 짧은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추측하여 말한다.
	심화 과정	(5) 글의 명시적 의미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6)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생활 용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한다.	(5)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요지, 주인공의 성격 등을 추론하여 말한다. (6) 들은 내용에 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여 말한다.

		읽기	말하기
10-b 단계	기본 과정	<p>(1) 쉬운 문학 작품을 읽고, 주제, 인물, 구성, 배경 등을 이해한다.</p> <p>(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글의 전개,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한다.</p> <p>(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의견과 사실을 구별한다.</p> <p>(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추측한다.</p>	<p>(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비교적 정확하고 막힘 없이 대화한다.</p> <p>(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자기의 주장을 말한다.</p> <p>(3) 특정한 화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p> <p>(4)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황에 맞게 알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p> <p>(5) 친숙한 주제에 관해 안내 토론을 한다.</p>
	심화 과정	<p>(5) 쉬운 내용의 신문, 잡지 기사를 읽고 이해한다.</p> <p>(6) 내용이나 인쇄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면서 글을 읽는다.</p>	<p>(6) 특정한 주제나 목적에 맞게 짧게 연설한다.</p> <p>(7)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적절히 사용한다.</p>

Ⅲ.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지도의 방법과 실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와 말하기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 방법을 영어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특히 읽기에서 말하기 기능의 통합 시도를 통해서 총체적인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두었고, 무엇보다 읽기를 통한 말하기 기능의 신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적용방법을 고찰한다.

1. 연구의 계획 및 실행

가. 연구대상

여기서는 필자가 근무했던 서귀포시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6개 학급 중 비슷한 성적 분포를 보인 2개 학급을 선정하여 한 학급을 실험반으로, 나머지 학급을 비교반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 두 개 반의 선정은 듣기평가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동질한 성적분포를 보인다고 여겨지는 두 개의 집단을 표집한 것이다.

나. 연구 기간 및 절차

연구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이며 구체적인 연구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 설정 및 계획(2004. 3 ~2004. 4)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계획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문헌을 연구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실험 방법을 계획해 보았다.

2) 기초 자료 조사 및 연구 대상의 선정(2004. 4 ~2004. 5)

읽기 지도를 통한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교수법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 조사 뿐만 아니라 실험 시작하기 이전에 실시한 2차에 걸친 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연구대상 학급을 선정하였다.

3) 실험 수업의 설계(2004. 4~2004. 5)

연구 대상 선정 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본문을 분석하여 실험수업을 위해 단원별, 차시별로 읽기지도를 통한 말하기 통합 기능활동 자료를 제작하였다.

4) 실험 수업 실시단계(2004. 5 ~ 2004. 10)

실험 수업 계획에 따라 실험반에서는 읽기 자료를 통한 말하기 위주의 통합 영어수업이 진행되었다. 비교반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해석과 구문 분석 위주의 읽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험반의 수업은 2004년 5월 세 번째 주부터 2004년 10월 두 번째 주까지 약 16주에 걸쳐 실시되었고 주당 2시간이 투입되었다.

5) 결과 분석 및 정리(2004. 10 ~ 200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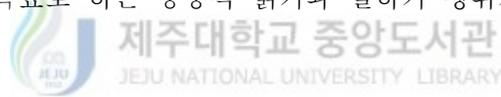
실험 수업 전·후에 실시한 읽기 및 말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와 앞서 말했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흥미와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실험 수업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지도의 실제

가. 능동적 읽기의 성취기준

현재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의 수업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수업진도에 대한 부담감과 입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시간을 문장 해석과 구문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수동적 읽기 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읽기 지도에서는 단순하게 독해위주의 읽기를 넘어서 읽기 자료 이해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과 연계된 통합적 지도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자료를 통해 통합적 영어기능의 습득이 가능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읽기 지도를 실시하여 실험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학급에서 목표로 하는 능동적 읽기와 말하기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학급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성취수준>

	능동적 읽기 성취기준	말하기 성취기준	7차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의 관계
기본활동	(1) 직독직해를 및 순차적 해석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맥에 비추어 의미를 예측하고, 그 단서를 찾는다. (3) 새로운 어휘들은 문장 속에서 익히고, 문장 속의 구문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1) 읽기 자료에서 추려낸 필요한 문형들을 발음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여 혼자 말해본다. (2)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단어들을 문형 틀에 대입하면서 다양한 상황적 문장을 말해본다.	10-a, 10-b, 선택과목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읽기, 말하기

	능동적 읽기 성취기준	말하기 성취기준	7차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의 관계
기본활동	(4) 읽기 자료를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 발음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이며 큰 소리로 읽는다. (5) 문장마다 일상 회화로 응용할 수 있는 문구들을 뽑아낸다. (6) 다양한 상황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재구성하여 읽는다.	(3) 대화로 사용 가능한 문장들을 가지고 간단한 대화구문을 만들어 파트너와 함께 영어로 대화한다. (4) 읽기 자료에서 뽑아낸 문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 본다. (5)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한 발표를 한다.	10-a, 10-b, 선택과목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심화활동	(7) 글의 명시적 의미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8)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읽고 이해한다.	(6)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요지, 주인공의 성격 등을 추론하여 말한다. (7) 들은 내용에 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여 말한다.	=>읽기, 말하기

위의 표에서 작성한 같이 실험학급의 능동적 읽기와 말하기 성취 기준은 현 7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고등학교 10학년 영어와 선택교과목의 영어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재구성 한 것이다.

나. 단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3개 단원을 실험단원으로 선정하였다. 단원 구성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단원 구성>

단원명	의사소통기능	통합지도 요소
<p>1. The World is Your English Classro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망하기 He always wanted to have his own company by age 25. I never expected this. This is better than I ever dreamed of. · 감사표현하기 Thanks. I owe you one. How can I ever repay you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p>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p>
<p>2. Music Has Pow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Happy to see you here!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What a surprise seeing you here! · 대화의 중단 I'm sorry for the interruption, but Mr. Smith wants to see you now. Will you excuse me while I make a call? 	<p>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p>
<p>3. Funny Stor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하기 If you're free this Saturday, why not go to the "Back-to-School" dance with me? Would you be interested in seeing a play? · 가정하기 If I hadn't, I would've loved to go with you. If only I'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received a better grade. 	<p>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p>
<p>4.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사기 That's on Sale. It has a reduced price now. · 허락 요청하기 Do you mind if I sit here? Not at all. Go ahead. · 감사하기 You were always so thoughtful. 	<p>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p>

다.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활동 수업 모형

읽기는 문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은 읽기 기능의 발달의 출발점이 된다. 이는 읽기와 말하기 기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소리와 문자와의 연관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말하기를 통하여 읽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읽기단계는 읽기 선행 활동(pre-reading), 읽기 본 활동(while-reading), 읽기 후행 활동(post-reading)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단계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읽기 본(while-reading)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Dubin & Bycina(1991)에 의하면 읽기 중 단계는 학습자의 읽기 전략을 향상시켜 주며 외국어에 대한 통제력을 길러주고 문제가 되는 단락을 이해하도록 해 주는데, 이 단계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⁸⁾

첫째,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읽기 중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 후 읽기 활동은 말하기 기능 신장의 입력으로 삼아 읽기 활동을 정리하고 말하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말하기 활동은 Rivers(1978)가 주장한 말하기 지도의 두 단계인 기능연습(skill-getting)과 기능활용(skill-using)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 지도와 함께 통합적인 읽기지도를 하면서 동시에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고려하는 전체적인 수업 모형의 틀은 다음과 같다.

18) B. Dubin & T. Bycina(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pp. 195-215.

<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활동 수업 모형 >

		Speaking Abilities				
		↙		↘		
		Skill-getting		Skill-using		
Pre-reading		↕		↕		
↓						
While-read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내어 읽기 a. Mechanical drills b. Meaningful drills c. Communicative dril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ve Speaking · Interpersonal dialogue · Discussion 	=>	Communicative Competence
↓						
Post-reading		↕		↕		
		Feedback				

라.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 지도 단계

1) 기능연습의 단계

앞서 지적했듯이 말하기에서 기능연습(skill-getting)의 단계는 언어를 조작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발음, 어휘, 문법구조, 의미 등을 인지하고 이들에 관한 규칙을 내재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 표현 연습을 하며 옳은 발음을 하고 구조에 맞는 문장을 구성하여 말하게 한다. 이는 읽기지도에 있어서 지도하는 발음, 어휘, 문법, 단어 등과 같은 선행학습을 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읽기자료를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활동과 연관을 시켜서 읽기를 통한 말하기 기능의 단계로 끌어올려 통합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읽기 방식을 통하여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가) 소리내어 읽기



소리내어 읽는 활동은 읽는 활동이 언어 자체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소리내어 읽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소리내어 읽기 활동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연습(skill-getting)의 단계에 적합한 소리내어 읽기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첫째, 교사는 발음, 억양 등에 주의하도록 하면서 전체학생들에게 알맞은 속도로 텍스트를 읽는다.

둘째, 이번에는 교사가 의미 단위에 중점을 두면서 텍스트의 내용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며 읽는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단원의

일부를 의미단위에 맞게 표시하여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Love has the greatest power / in the world. // Love has the
power / to color all things. // Love can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 Love can cure a broken heart. // Love does make a
joy sweeter, / and a victory more satisfying. // Love, / however,
begins with a small thing. //

When I was eight, / I asked my father / for money to buy a
gift for mother. // He gave me a whole dollar. // Off I went to
find something wonderful. //

The elegant shop owner said, / "You'd better go and find
something / at Woolworth's for your dollar." //

Suddenly, / a miracle happened. // There it was! // It was
beautiful in its box, / on a bed of cotton like a precious jewel. //
"How much is this?" // I asked the lady. //

"It's your lucky day." she said. // "That's on sale, / marked
down to one dollar. // Hardly anyone needs a glass pickle fork
nowadays." / I did! //

셋째, 학생들은 교사의 읽기 시범에 따라서 의미단위별로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단어와 구문을 익히는 단계로, 교사는 말하기의 연습의 한 방법으로 Paulston & Bruder(1976)가 제시한 세 가지 훈련(drills)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위 텍스트에 관한 구문들을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⁹⁾

19) C. B. Paulston & M. N. Bruder(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Oxford : Oxford Press. pp. 30-70.

a. 기계적 연습

새로운 단어나 구문을 단어카드나 그림들을 이용하여 제시하되, 교사가 큰 소리로 읽으면 학생들은 다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한다.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하여 강세와 의미를 익히도록 하는데, 구문 제시는 한 문장 중 구성요소부터 시작하여 왼쪽 구성요소로 연습시키는 기법(backward building)을 활용하도록 한다.

T: a small thing

S: a small thing

T: begins with a small thing

S: begins with a small thing

T: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S: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T: more spectacular

S: more spectacular

T: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S: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T: Love can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S: Love can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b. 유의적 연습

단어나 구문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한 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단어와 구문을 이용하여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을 하되, 예측 가능한 대답(predicted response), 그리고 사용 가능한 제한된 문구(limited set of possible response)를 유도하도록 도와준다.

T: What begins with a small thing?

S: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T: What can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S: **Love** can make a sunset more spectacular.

T: What is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e world?

S: **Love** is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e world.

(Love has the greatest power in the world.)

c. 의사소통적 연습

좀 더 적극적인 읽기 활동을 위한 단계이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 수는 없지만 텍스트에 나온 구문을 바탕으로 통제된 의사소통 (controlled communication)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파악하고 읽기를 통한 이해단계에서 말하기를 통한 표현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의 활동이다.

이 활동을 위해 교사는 의도적으로 텍스트에 나온 문구를 통하여 좀 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

위의 지문과 관련된 의사소통적 연습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 Have you ever felt the greatest power of love?

S: Yes. I felt the greatest power.

T: Really? When did you feel it?

S: When I was sick, my mom helped me a lot.

T: Good, What else can love do for us?

S: Love can cure a broken heart.

2) 직독직해의 읽기를 통한 말하기 연습

이 과정은 기능연습 단계에서 기능활용 단계로 전환하는 중간단계로서 직독직해를 통한 말하기 연습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읽기에서 직독직해 훈련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이 실험에는 말하기를 위한 읽기의 한 방법으로서 직독직해의 활동을 응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장을 읽고 해석할 때에 단순히 묵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어, 한 구문씩 순차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표현력과 더불어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앞서 단어와 구문에 대한 공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직독직해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영어와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할 때에 복잡하게 뒤에서 올려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가급적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먼저 교사는 문장 단위별로 소리내어 읽는다.

둘째, 그 다음 교사는 한 단어씩 다시 읽은 후, 학생들에게 의미를 물어본다.

셋째, 학생들은 교사가 순차적으로 읽는 영어 단어나 문구에 대해 학생들은 큰 소리로 해석을 하게 된다.

T: Love has the greatest power / in the world. //

(소리내어 읽는다.)

T: Would you translate the words into Korean?

S: Yes!

T: Love

S: 사랑은

T: has

S: 가지고 있습니다.

T: the greatest

S: 가장 위대한

S: Sure. "Love has the greatest power in the world."

T: Excellent. You did a good job.

위에서 보여준 대로, 앞서 단어와 구문에 대한 연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위와 같이 말하기 기능을 이용한 직독직해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어려워하는 어순관계와 표현의 정확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반복적이면서 순차적인 직독직해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발화의 과정을 터득하게 된다. 이는 읽기는 물론 말하기의 아주 중요한 기초 연습이 된다.

3) 기능활용의 단계

앞서 말했듯이 말하기에서의 기능활용은 말 그대로 언어의 사용 단계를 뜻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읽기를 통해 말하기의 조작단계에서 사용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직독직해의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제안하였다.

사실 첫 단계의 연습에서 언어표현과 실제상황을 결부시킨다 하더라도 유사의 사전달(pseudo-communication) 단계를 벗어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는 첫 단계의 활동이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외부에서 통제하는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인 의사소통활동을 위해서 기능활용 단계에서는 읽기를 통한 기능연습 단계 속에서 얻어진 구문과 직독직해 능력, 그리고 발화의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상황에 따른 기능 활용의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읽기 지문을 통해 사용해보자.

When I was eight, / I asked my father / for money to buy a gift
for mother. // He gave me a whole dollar. // Off I went to find
something wonderful. //

The elegant shop owner said, / "You'd better go and find
something / at Woolworth's for your dollar." //

Suddenly, / a miracle happened. // There it was! // It was
beautiful in its box, / on a bed of cotton like a precious jewel. //
"How much is this?" // I asked the lady. //

"It's your lucky day." she said. // "That's on sale, / marked down
to one dollar. // Hardly anyone needs a glass pickle fork nowadays."
/ I did! //

The next day before lunch / I presented it / to my mother. //
"Isn't it beautiful?" // Mother asked. // "Wow, it's hand-blown
glass..." //

"It's a pickle fork," // I said proudly. //

"I shall treasure it." / said my mother. // She then kissed me. //
After that, / we had a lot more pickles at meals. //

가)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이용한 대화

교실에서의 응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대화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배운 구문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고 화자의 의도가 적절하게 들어간 실제적이면서도 의미적인 대화활동이다. 위의 글을 바탕으로 교사는 내용의 이해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물론 배운 구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 Why did the boy ask his father for money?

S: Because he wanted to buy gift for Mother.

T: Why did the elegant shop owner say that he'd better go to another place?

S: Because he didn't have enough money.

T: What kind of miracle happened?

S: A precious jewel was on sale.

나) 서로의 정보를 알기 위한 자연스런 대화

앞서 배운 구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 이 때 교사는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표현들을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대답을 해 준다.

T: Have you ever **bought a gift for somebody** before?

S: Yes. When I was ten, I went to a department store **find something wonderful** for my grandmother

T: Why did you want **to buy a gift for your grandmother**?

S: It was for her birthday .

T: Did you **find something good** for her?

S: No. I didn't have enough money.

T: So, what happened?

S: **It was my lucky** day because I met my uncle there and **he gave me some money**.

이 대화에서 보면 두 사람은 서로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게 된다,

다) 주제에 대한 토론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대화의 기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그룹활동(group work)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각 집단별로 리더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토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에 앞서 교사는 미리 학생들이 토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각 표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공해 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① 읽기 내용을 기본으로 이 내용을 읽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발표하도록 한다.
- ②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 내용과 관련하여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③ 교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리더는 이 상황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토론을 진행한다.
- ④ 주어진 주제 이외에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여기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시켜 지도한 결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언어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그 같은 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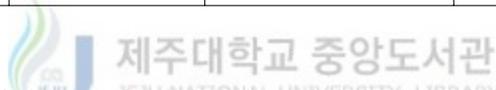
1. 듣기 기능 변화

본 논문의 첫째 가설은 “읽기 지도를 할 때 말하기 기능의 통합 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독해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전반적인 듣기 능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간단한 듣기 자료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으며,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원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듣기 평가 사전·사후 평가 문항은 <부록1,2>에 제시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듣기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고,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 외국어구사능력 인증제를 위하여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2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정기준 및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듣기 평가의 평가 내용과 방법>

구분	비교반	실험반	평가내용	도구	실시시기
사전검사	1학년 전체 중 실험집단 제외한 전체 5학급 102명)	중간고사 및 반편성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이 중간점수인 집단 (1학급 30명)	(1) 독해·어휘·문법을 기본으로 한 중간고사 지필평가 (2) 듣기 평가 1 (전국 고1 듣기평가) (3) 듣기 평가 2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 를 기준)	· 시험지 · 듣기자료	· 지필: 2004년 2 월, 4월(2회) · 듣기: 2004년 4 월
사후검사			(1) 듣기 평가1 (전국 고1 듣기평가) (2) 듣기 평가2 (외국어구사능력인증 제를 기준)	· 시험지 · 듣기자료	· 2004년 10월 · 2004년 11월



위의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한 사전검사(듣기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듣기 능력 평가결과>

평가 내용	평가대상	평균	편차	인원
1. 전국 고1 듣기평가 I	실험반	73.50	1	30
	비교반	72.50		102
2.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문항을 기 준으로 한 평가 I	실험반	74.00	0.5	30
	비교반	73.50		102

위의 결과를 보면 실험반과 비교반에 유의한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실험 단원이 끝난 후 실험반, 비교반 모두 20문항을 가지고 실시한 듣기평가에서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사전 듣기 능력평가 문항보다는 난이도를 높여서 각 단원에서 골고루 문항을 선택하여 실시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후 듣기 능력 평가 결과 비교>

평가 내용	평가대상	평균	편차	인원
1. 전국 고1 듣기평가Ⅱ	실험반	85.50	9	30
	비교반	76.50		102
2.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문항을 기준으로 한 평가Ⅱ	실험반	75.00	5.5	30
	비교반	69.50		102

이 결과는 읽기 지도와 함께 말하기 지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읽기지도만을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학생의 듣기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실험처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말하기 기능을 다양한 역할놀이 등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는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읽기 위주만의 수업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말하기 기능 변화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은 “읽기 지도를 할 때에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 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독해 위주의 읽기 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말하기 능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지적한 과정에 따라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하여 지도한 후 매 단원마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실험단원이 끝난 후에는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한 문항 항목이 기록된 인터뷰 자료 및 그림 묘사자료를 가지고 말하기 능력 평가를 시도하였고, 구체적인 말하기 평가 문항은 <부록 5,6,7>에 제시하였다.

필자가 이처럼 말하기 능력을 수행평가 형태로 실시했던 것은,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듣기 평가와는 달리 말하기 평가는 평가 시간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은 말하기 태도와 어휘의 정확성, 표현의 유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 외국어영역의 음성 언어 능력 평가 척도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말하기 검사 평가표를 활용하여 배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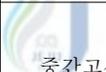
<말하기 능력 검사 평가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50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있고 유창하여 적합한 태도를 말함	완성된 문장
40	정확한 발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수줍어하며 머뭇거림.	완성된 문장
30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머뭇거리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함	불완전한 문장
20	영어로 의미를 표현하나 정확성, 유창성, 자신감이 거의 없음	낱말, 어구
10	영어 표현은 못하지만 의미를 전달함	비언어

위와 같은 평가표를 참고하여 단원별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말하기 평가는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하기 평가는 사전검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고, 수업이 모두 진행된 후에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원어민 선생님의 지속적인 수행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말하기 평가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앞서 설명 했듯이 말하기 평가가 읽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읽기와 말하기의 통합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작성할 때, 각 단원의 읽기 내용과 연계를 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평가의 평가 내용과 방법>

구분	비교반	실험반	평가내용	도구	실시시기
평가 내용	1학년 전체 중 실험집단 제외한 전체 5학년 102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중간고사 및 반편성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이 중간점수인 집단 (1학년 30명)	(1) 각 단원별 내용에 관 한 질문과 대답 (2) 읽은 내용 요약하기 (3) 그림 설명 등 자유로 운 의사표현	· 시험지 · 말하기자 료 · 읽기자료 · 그림	· 각 단원이 끝 날 때마다 실시

이 실험단원을 모두 마치고 각 단원에서 나오는 읽기와 말하기 기능 통합 지도를 위해 사용했던 핵심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10문항의 말하기 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학생들과의 1:1 면접을 통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단원 말하기 능력 평가 시 적용된 말하기 능력 검사 척도표를 그대로 활용 하였으며 총 10문항이므로 한 문항 당 10점으로 100점 만점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하기 평가 실시 결과>

단원	평가대상	평균	편차	인원
1. The World is Your English Classroom	실험반	67.50	0.5	30
	비교반	68.50		102
2. Music Has Power	실험반	72.00	2.5	30
	비교반	69.50		102
3. Funny Stories	실험반	73.00	5	30
	비교반	68.00		102
4.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실험반	81.50	9.5	30
	비교반	72.00		102

위의 평가 결과에서와 같이 실험반은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비교반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 실험반과 비교반이 거의 동질집단이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획기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읽기 지도와 함께 말하기 지도를 통합하여 실시한 것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기존의 읽기 위주의 고등학교 영어수업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의적 영역 변화

본 논문의 세 번째 가설은 “읽기 지도를 할 때 말하기 기능의 통합적 지도 방법을 적용해서 수업한 학생들과 독해 위주의 읽기지도를 실시한 학생들 사이에는 정의적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읽기지도와 말하기지도와 함께 실시한 후 <부록8>에 제시한 것처럼 학생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동기 등의 내용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각 영역마다 5단계로 나누어 각 문항마다 10점 간격으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즉 영어수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최대 50점에 가까운 점수를,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응답을 학생들은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게 하였다. 그 평가 내용과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의적 영역 평가 내용과 방법>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분	비교반	실험반	평가내용	도구	실시시기
평가 내용	1학년 전체 중 실험집단 제외한 전체 5학년 102명)	중간고사 및 반편성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이 중간점수인 집단 (1학년 30명)	(1) 영어 학습에 관한 흥미도 조사 (2) 언어학습에 대한 자신감 조사 (3) 영어 학습에 관한 학습동기 및 태도에 관한 변화 조사	· 설문지	· 2004년 11월

< 정의적 평가 영역 결과 >

	평가대상	평균 (50점 만점)	편차	인원
1. 학습에 관한 흥미도	실험반	40.00	10	30
	비교반	30.00		102
2. 학습에 관한 자신감	실험반	50.00	20	30
	비교반	30.00		102
3. 학습태도 및 의욕변화	실험반	50.00	10	30
	비교반	40.00		10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읽기 지도와 말하기 지도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정의적 영역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 위주의 수업에서 다소 수동적인 학습형태보다는 말하기 위주의 능동적인 학습형태가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말하기를 도입하여 학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말하기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채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영어교육 현장에서 읽기와 말하기 기능의 통합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생각할 때 중요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EFL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를 포함한 문자언어 자료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 자료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읽기에서 말하기로 넘어가는 기능연습의 단계를 유도하였고, 직독직해 소리내어 읽기연습을 통해서 보다 기능 활용의 단계, 즉 말하기 기능에 가까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며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 시도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읽기 위주의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서서히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총체적인 언어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이용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더 나아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았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하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읽기를 통한 말하기 기능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언어 위주의 수업현장 속에서 말하기 기능과 같은 다른 언어기능들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를 시도한 이 연구에서 실험대상이 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읽기 위주의 지도보다 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읽기와 말하기의 통합지도를 통해 듣기 능력이 향상됨을 보았고, 읽기와 말하기의 통합을 통해서 말하기 기능이 향상이 되었음은 물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면서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유도해 보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입시교육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읽기 중심의

편중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읽기중심의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도 총체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본 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를 현재의 교육과정처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분리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을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적합한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Bibliography)

-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외국어(영어)」, 서울 : 교육부.
- 김영철(2000),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모형 및 교실영어」, 서울 :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철(2002), “통합적인 초등영어 읽기, 쓰기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 호남학회.
- 김희선(2001), “총체적 언어 교수법이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 및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두본(1997), 「영어교육학」, 서울 : 한신문화사.
- 서정일(2003), “통합영어교수법(whole language)의 이론과 실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 이성은(1994), 「총체적 언어교육」, 서울 : 창지사.
- 하광호(1997),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서울: 에디터.
- 최진황(2000),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모형 및 교실영어」, 서울 :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Adrian, D. (1988), *Teaching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London : Longman.
- Carrell, P. L. (1988),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bin, B. & Bycina, T.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ed.), Boston : Heinle & Heinle Publishers.
- Douglas, H. B. (2001), *Teaching by Principles*, New York :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Dubin, F. & Bycina, D.(1991), *Academic Reading & the ESL/EFL Teacher*.

- In M. Celce-Muric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MA : Heinle & Heinle Publishers.
- Edelsky, C. & Altwerger, B. & Flores, B. (1991). *Whole Language: What's the Difference?* Portsmouth, NH : Heinemann.
- Ellis, R. (1984), *Classroom Second Language Development*. Oxford : Pergamon.
- Freeman, D. & Freeman, Y. (1988), *Whole Language Content Lessons for ESL Students*, Portsmouth, NH : Heinmann Educational Books.
- Goodman, K. S. (1967),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Journal of the Reading Specialist* 6(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tiy Press.
- _____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 Heinemann.
- Hymes, D. (1972) "*Toward Ethnographies of Communication: the analysis of communicative events*". In Pier Paulo Giglioli (ed.) *Language and Social Context*. Harmondsworth: Penguin.
- Johnson, K. E. (1995),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 Pergamon Press.
- _____ (1993), *The Power of Reading*.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UP.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Oxfröd : Oxfröd Press.
- Rivers W. & Temperley, O.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A : UCLA Press.
- Stauffer, M. (1976), *Teaching Reading as a Thinking Process*, New York :

Harper & Row.

Vygotsky, L. (1965),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 Cambridge Press.

Weaver, C. (1988), *Reading Process and Practice: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Integrative Methods of
English Reading and Speaking Skills in High School**

Ko, Ji-h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current flow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has been changed incredibly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 emphasis on the integration of 4 skills(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in English education.

Still, however, preparing for the entrance test for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in high schools and it means that most English teachers are under pressure of tight and difficult curriculum to finish heavy texts, which students should take for the test.

For that reason, we can recognize that the ideal teaching-learning plan of 7th national curriculum devi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ems far away from the real situation.

Especially, English reading skills compared with others has been emphasized in high school English education due to the test. Since most Korean students are exposed to the EFL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give them the chance to face the authentic English of native speakers.

To accomplish this goal, reading activities in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wo step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which are skill-getting and skill-using activities and they are directly connected with speaking skills. First, in the step of skill-getting activity, students try to read the text with a loud voice considering the pronunciation, stress and intonation, etc. I tried to induce the students' speaking skills by making them practice words and phrases through various reading methods, so students naturally acquire the sentence structure and other features of English speaking ability while they are reading and translating directly words or sentences of the text.

Actually, they began to practice the basic skills of speaking by reading and translating directly. Nevertheless, these various skill-getting activities through reading methods in the class can be limited skills because there are a lot of unexpected situations in real communicative situation.

For that reason, in the second step of reading activities, which is skill-using, students take more practical and active reading and speaking skills, so each text has many unexpected situations for the authentic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these various methods to approach effective integration of reading and speaking skills, many students have more self-confidence to speak in English and have the chance of whole language learning.

This study suggested many tries and integrative language skills hoping that we can find a lot more hidden methods of useful and effective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for our students. There is no doubt that we should develop many creative and soli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f our students.

부 록



<부록 1> 듣기평가 -1회

1. 대화를 듣고 Mr. Robinson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기차가 도착할 시각을 고르시오.

- ① 2:30 ② 2:55 ③ 3:00
④ 3:05 ⑤ 3:30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angry ② happy ③ lonely
④ jealous ⑤ worried

4.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hotel ② airport ③ post office
④ police station ⑤ department store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boss - secretary ② tourist - tour guide
③ librarian - student ④ professor - student
⑤ interviewer - applicant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극장에 가자고 말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첫눈이 내려서 ② 집 안이 추워서 ③ 새 영화를 보려고
④ 추억을 되살리려고 ⑤ 여자의 생일이어서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고르시오.

- ① 건축업계 ② 무역업계 ③ 사회 봉사
④ 패션업계 ⑤ 해외 관광

14.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 _____

- ① Don't mention it.
- ② It is nice of you.
- ③ That's a good idea.
- ④ No, don't bother me.
- ⑤ Thanks, but I'm OK.

15.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 _____

- ① That's all right. He likes reading.
- ② Sure. He likes to cook and serve.
- ③ Yes. He loves to work in a hotel.
- ④ Yeah. He' s looking for a new job.
- ⑤ Maybe. He will get married soon.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 _____

- ①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 ② That's fine with me. Goodbye.
- ③ That's true. I'd agree with you.
- ④ It has been nice talking to you.
- ⑤ Then I'll have to call the pol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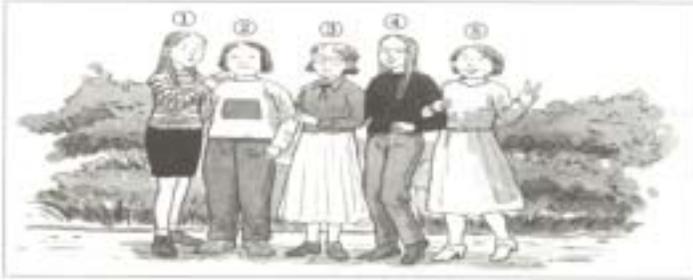
17.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Paul이 이웃 사람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aul : _____

- ① I'm sorry, but I have to go.
- ② I think you are staying here.
- ③ It's a really wonderful party.
- ④ I hope you enjoyed yourself.
- 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부록2> 듣기평가 - 2회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어머니를 고르시오



2. 대화를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병원 ② 은행 ③ 약국 ④ 경찰서 ⑤ 강의실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angry ② pleased ③ worried
④ indifferent ⑤ embarrassed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흥분한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잦은 출장 명령 때문에 ② 빈번한 전화 고장 때문에
③ 너무 비싼 비행기 요금 때문에 ④ 부당하게 청구된 전화 요금 때문에
⑤ 근무지가 너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르시오.

- ① 월급인상을 원한다 ② 휴가를 얻고 싶다 ③ 부서를 옮기고 싶다.
④ 결혼을 연기하고 싶다. 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목적기까지 타고 가려고 하는 교통편과 그 소요시간을 고르시오.

- ① 열차로 2시간 ② 자동차로 2시간 ③ 열차로 4시간
④ 자동차로 4시간 ⑤ 비행기로 4시간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새 쇼핑 센터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주차장이 너무 좁은 것
② 물건 값이 너무 비싼 것
③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④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된 것
⑤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

8.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 ① 휴대폰 ② 컴퓨터 ③ 계산기 ④ 라디오 ⑤ 팩시밀리
9. 다음을 듣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고르시오.
- ① 연사가 청중들에게
 ② 백화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③ 열차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④ 항공기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⑤ 관광 안내원이 관광객들에게
10.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보기로 한 채널을 고르시오.
- ① Channel 3 ② Channel 4 ③ Channel 7
 ④ Channel 9 ⑤ Channel 12
11. 다음은 자동 응답기에 남겨진 전화 내용을 어떤 사람이 메모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Telephone Message

To : ① Maryr
 From : ② Tim
 Message : ③ Change the time of our date
 ④ Due to working overtime
 ⑤ Meet at 6:30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 ① 주말 날씨 예보 ② 체육관 이용 안내 ③ 입학식 취소 안내
 ④ 학부형 모임 광고 ⑤ 학교 시간 변경 안내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 _____

- ① Sure. I'm willing to.
- ② In fact, I don't care.
- ③ That's right. I appreciate it.
- ④ No, we're always good friends.
- ⑤ At first I did, but not anymore.

15.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 _____

- ① Oh, that's right.
- ② Don't worry. I won't.
- ③ That's what you think.
- ④ Well, nobody's perfect.
- ⑤ Thanks. That's good advice

16. 대화를 듣고, 빈칸에 가자아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short, living in a city _____

- ① is very dangerous
- ② causes much stress
- ③ needs much money
- ④ makes us feel lonely
- ⑤ has many advant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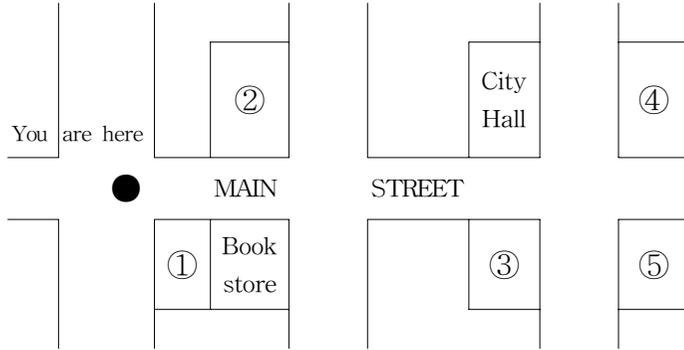
17.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rs. Blake가 Barry Winster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rs. Blake : Barry, _____

- ① just relax. You'll be OK.
- ② no problem. I understand.
- ③ I'm afraid I can't help you.
- ④ I didn't mean to offend you.
- 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부록 3>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교회 ② 학교 ③ 음식점 ④ 존의 집 ⑤ 앤의 집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happy ② excited ③ worried ④ cheerful ⑤ satisfied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고르시오.

- ① \$20 ② \$40 ③ \$60 ④ \$80 ⑤ \$100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 ① 고급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
 ② 구입 물건을 환불하기 위해
 ③ 음료수를 룸서비스시키기 위해
 ④ 침대시트 교환을 부탁하기 위해
 ⑤ 카페트의 얼룩을 항의하기 위해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직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극작가 ② 여배우 ③ 실업자 ④ 영화제작자 ⑤ 관광가이드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치과의사 - 환자 ② 옷가게판매원 - 고객
 ③ 여행사직원 - 사장 ④ 유치원교사 - 학부모
 ⑤ 자동차정비사 - 운전자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지 못한 이유를 고르시오.

- ① 너무 바빠서 ② 도로가 붐벼서
 ③ 책을 읽느라고 ④ 급한 일이 생겨서
 ⑤ 약속을 잊어버려서

9.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고르시오.

- ① 편지를 쓴다. ② 전화를 한다.
 ③ 예약을 한다. ④ 팩스를 보낸다.
 ⑤ 사무실을 방문한다.

10.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 ① Making paper ② Cutting wood
- ③ Painting furniture ④ Using steel rollers
- ⑤ Cooking potato chips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요일을 고르시오.

- ① 화요일 ② 수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⑤ 토요일

12. 다음을 듣고, 표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i>JAZZ CONCERT</i>	
WHO	① Andy Steel
WHEN	② Every weekend
	③ 10:00 P.M.
WHERE	④ All That Jazz Club
HOW MUCH	⑤ \$15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피곤해 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 ② 사람들이 너무 술에 취해서
- ③ 새벽까지 가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 ④ 직장 상사가 싫어하는 내색을 해서
- 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14. 대화를 듣고, Tom이 부탁 받은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설거지 ② 방 청소 ③ 감기약 복용
- ④ 정원 물 주기 ⑤ 동생 돌보기

15.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 ① 지나친 일광욕 ② 해수욕의 위험성
- ③ 자외선 차단 방법 ④ 화장품의 부작용
- ⑤ 수면의 치료 효과

<부록 4>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언급한 생일 선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A)



(B)



(C)

- ① (A)-(B)-(C)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 대화를 듣고, Mary가 가지고 있는 CD의 수를 고르시오.

- ① 약 50개 ② 약 100개 ③ 약 115개
 ④ 약 150개 ⑤ 약 160개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내일 오후에 만날 시간을 고르시오.

- ① 6:00 ② 6:20 ③ 6:40 ④ 7:00 ⑤ 7:20

4. 다음 대화 that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a classroom ② a library ③ a computer lab
 ④ a factory ⑤ a shop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a doctor - a patient ② a shopkeeper - a customer
 ③ a policeman - a driver ④ a lawyer - a client
 ⑤ a schoolmate - a schoolmate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말하고 있는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encouragement ② complaint ③ excuse
 ④ apology ⑤ suggestion

7. 다음 일기 예보를 듣고, 내일의 날씨를 고르시오.

- ① humid ② foggy ③ rainy ④ windy ⑤ sunny

8. 다음을 듣고, Robert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a tour guide ② a repairman ③ a policeman
 ④ a driver ⑤ a dentist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 ① 직장을 구하려고 ② 결혼을 알리려고
 ③ 지각을 알리려고 ④ 진료 예약을 하려고
 ⑤ 약속 날짜를 바꾸려고

10.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happy ② satisfied ③ bored ④ envious ⑤ lonely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원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월급 인상 ② 휴가 신청 ③ 부서 이동
 ④ 결혼 연기 ⑤ 구직 신청
12. 대화를 듣고, John이 Bruce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바쁘기 때문에 ② 재미없기 때문에 ③ 싸웠기 때문에 ④ 말이 많기 때문에 ⑤ 아프기 때문에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오늘 저녁에 할 일을 고르시오.
 ① 공연 관람 ② 영화 보기 ③ 가족과 외식
 ④ 데이트 ⑤ 생일파티 참석
14. 대화를 듣고, 집을 사려고할 때 여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구입 가격 ② 집의 크기
 ③ 집의 전망
 ④ 통학 거리 ⑤ 이웃 사람
15. 다음을 듣고 거북이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① 생존 가능성 ② 체온 변화 능력 ③ 긴 수명
 ④ 환경 적응 능력 ⑤ 방향 감각

<부록 5> 말하기 평가(1)

Lesson 4.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Speaking

A.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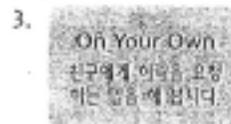
본문 A: Do you mind if I *turn on the radio*?
B: No, not at all. Go ahead.



sit here



close the door



B.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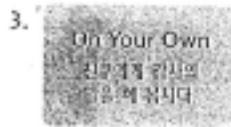
본문 A: You're so *kind* and so *generous*.
B: Thanks. I appreciate that.



caring / thoughtful



gentle / understanding



C. 짝과 함께 물건을 사고 파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본문 A: This *swimsuit* is on sale now.
B: Just *fifteen dollars*? Great. I'll buy one.



swimsuit / \$ 15



cap / \$ 3



vest / \$ 17

<부록 6> 말하기 평가(2)

Lesson 4.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Speaking Activities

A.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대화해 봅시다.

A: Do you mind if I play this computer game?

B: No, not at all. Go ahead.

A: You're so generous.

B: You're welcome. You can play it whenever you want.

- ▶ Would it bother you if
Would you mind if

B. 밑줄 친 부분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친구와 대화해 봅시다.



- ▶ It's marked down.
It has a reduced price now.

generous [dʒɛn(ə)rəs]
bother [bɒðə]

<부록7> 말하기 평가(3)

Lesson 4.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1. Dialogue : Present for my girlfriend

A: Hey, Jihee. I want to buy a present for my girlfriend, Sumi.

B: Is it for her birthday?

A: No. I just want her to know that I love her.

B: You're so sweet!

A: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esent?

B: What about shoes? It's on sale.

A: Good Idea! Let' check it out!

B: Don't forget. Love begins with a small thing.

2. Questions :



- What's the main idea of this lesson?
- When did you feel the most precious love in your life?
- What does the real present for our friends and family?
- Can you tell me your experience of true love?
- Let's talk about the true love together. Why don't we share our personal experiences.

<부록8> 정의적 영역 (평가 설문지)

영역	평가문항	평가점수
1. 학습에 관한 흥미도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고 영어 시간이 매우 기다려진다.	50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0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고 예전보다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30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예전이랑 별 차이 없다.	20
	영어학습에 흥미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영어가 싫어졌다.	10
2. 학습에 관한 자신감	예전에 비해 영어학습에 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다른사람과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다.	50
	영어학습에 자신감이 생겼고, 대화할 때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다.	40
	영어학습에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조금 있다.	30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예전이랑 별 차이 없다.	20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영어공부가 두렵다.	10
3. 학습 태도 및 의욕변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겼다.	50
	수업태도가 좋아졌으며, 조금씩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40
	예전보다 태도가 좋아졌지만 별 차이는 없다.	30
	학습태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학습 의욕도 차이가 없다.	20
	학습태도가 나빠졌으며, 영어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10